

식민지시기 말레이 술탄의 위상과 역할*

소병국**

I. 서론

식민지배이전 전통시기의 말레이 절대군주인 술탄의 신성한 왕권은 바다로부터 하얀 소를 타고 빨렘방의 시 부킷 군땅(Si Bukit Guntang)에 출현한 신비스러운 왕자, 상 뿌르바(Sang Purba)를 조상으로 하는 기원설화(Sharifah 1993: 43-45; Sejarah Melayu 1970), 초자연적인 힘에 바탕을 둔 군주의 통치권을 의미하는 다울랏(daulat)과 통치권에 대한 도전을 반역, 즉 더르하카(derhaka)로 간주하는 개념에 중심을 두고 있다(Moy 1978: 134-135; Sejarah Melayu 1970). 15세기 초 왕국의 성립 초기에 주로 힌두교와 불교의 영향을 받아 확립된 그 같은 말레이 왕권의 이념은 15세기 중엽 근본적으로 신성한 왕권을 배격하는 이슬람교가 말레이 사회에 도입된 이후에도 페르시아의 이슬람적 신성 왕권¹⁾과 신

* 이 연구는 2003학년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내 학술연구비의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 한국외국어대학교 말레이-인도네시아어과 교수, bks0h@hufs.ac.kk

1) 중세에 샤리아(Sharia: 이슬람법)를 바탕으로 하는 사회는 이슬람 세계에서 단지 정치적 이상에 불과했다. 당시에 현실적으로 칼리프 제도는 옛 페르시아 제국의 심장부로부터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바그다드에 중심을 둔 압바시드 정권 시기의 페르시아 군주제의 특징을

비주의적 이슬람인 수피즘(Sufism)의 이념²⁾을 선별적으로 채택, 융합함으로써 그 근간을 유지했다(Milner 1985a: 25-35).

그러나 그 같은 신성한 왕권의 이념이 실제적으로 지배와 피지배 관계에 있어 군주의 절대권력을 보장해주지 못했다. 따라서 군주는 신성한 왕권을 강조하는 한편, 신하의 디르하까, 특히 중앙 관료의 왕위찬탈을 비롯한 여러 도전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부차적인 기제로 여러 법적, 제도적, 도덕적 장치를 마련해야 했다. 법률을 통해 의복색깔, 어휘 사용 및 법률집행에 있어 왕의 고유 권한 또는 특권을 명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사형 등 무거운 벌을 내리도록 하는 한편, 국사를 논의하는 회의체제(Mesyuarat Bicara) 및 만장일치(mufakat)의 결정방법 등 행정체제를 통해 관료를 견제하고 그들 간의 세력 균형을 유지하도록 노력했다. (Liaw 1976). 또한 부의 규모가 곧 추종자의 규모, 즉 부를 정치적 차원에서 인식했던 전통 말레이 사회에서 군주는 관료의 부의 축적에 민감한 관심을 가졌다(Milner 1982). 뿐만 아니라 군주는 엄격한 의식절차를 통해 관료에게 호칭과 직위를 수여함으로써 자신에 대한 그들의 소속감을 확고히 했다(Milner 1985a; 1985b).

백성과의 관계에 있어 군주는 부의 축적 및 재분배를 통해 그들에게 보호자라는 인식을 심는 한편, 이슬람 규범에 충실해 자신 및 왕가의 폭정을 제어하려 힘썼다. 이처럼 전통 말레이 군주는 백성을 보호하는 대가로 그들로부터 충성을 유도하는 지배와 피지배 관계를 구축했다. 이상의 관계를 바탕으로 전통시기에 술탄제는 말레이인의 세계관 속에 존경 또는 경외와 정체성의 구심점으로 확고한 자리를 잡았다(Liaw 1976; Sejarah Melayu 1970).

동남아 대부분의 국가에서 전통세력의 정점으로서 절대군주의 위상과 역할

채택했다. 페르시아 군주는 “지상의 신의 그림자”로 묘사되었다. 이슬람 칼리프가 그 같은 왕권의 개념을 채택하면서 이슬람 세계에 새로운 군주가 출현했다.

- 2) 이슬람으로 개종한 멀라카 왕들의 관심을 사로잡은 또 하나의 신성한 무슬림 왕권 개념은 수피즘의 신성한 절대자와 본질적으로 완전한 일체를 실현한 성인을 의미하는 “완전인”(Perfect Man) 교리였다.

은 식민지 및 탈 식민지 시기의 현대화 과정을 겪으며 명목상의 지배자로 전락해 현저히 퇴조하거나 심지어 군주제의 폐지로 인해 그 존재 자체가 소멸된 경우가 일반적인 반면, 말레이 술탄은 그 과정 속에서도 자신들의 전통적인 위상과 역할을 지속적으로 유지했다. 본 연구는 말레이시아 군주제의 그 같은 예외성을 가능케 한 동학을 역사적으로 고찰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식민지배 및 전후 탈식민지 시기 동안 술탄의 전통적인 위상과 역할의 유지를 가능하게 했던 동학을 고찰한다. 특히 본 연구는 그 위상과 역할의 연속성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이 주제와 관한 대부분의 연구들이 등한시 한 일본 점령시기를 고찰함으로써 역사해석의 단절을 극복하려 시도한다. 이처럼 본 연구는 독립이전 말레이시아 정치문화의 형성 및 발전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시도하는 한편, 1957년 독립과 함께 입헌군주제로 전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말레이시아 군주제가 오늘날까지 정치, 사회적으로 효용성을 지속하고 있는 원인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바탕을 제공할 것이다.

II. 영국 식민지시기 술탄의 위상과 역할

말레이 반도에 대한 영국의 식민지배는 1874년 1월 20일 팽락 주의 술탄 압둘라와 체결한 팽꼬르 협약(Pangkor Treaty)을 기점으로 본격화되었다. 이 협약의 핵심은 술탄이 “말레이 종교(이슬람)와 관습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 모든 문제에 대해” 주재관(Resident)의 “조언”(advice)을 받도록 하는 제도(Residential system)의 도입이었다. 협약의 내용에 따르면 주재관의 역할은 술탄에게 조언을 하는 것으로 되어있으나, 사실상 이 제도는 해협식민지(Straits Settlements)인 싱가포르에 주재하고 있는 총독의 명을 받아 반도에 파견된 주재관이 서구식 행정체제를 통해 절대군주인 술탄을 매개로 말레이 사회를 통치하는 일종의 간접 식민지배 방식이었다. 그렇다면 영국이 합병을 통한 직접통치 대신

간접통치 방식을 도입해 확립시킨 배경은 무엇일까? 이 물음에 대한 적절한 고찰은 식민지배 하 술탄의 위상과 역할과 관련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왜냐하면 이 제도는 2차 세계대전 이전까지 여러 면에서 사회변동을 유발한 식민지배 하에서도 전통 말레이 사회의 술탄의 위상과 역할, 특히 말레이인의 존경과 정체성의 구심점의 지속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1826년에 해협식민지의 건설을 통해 싱가포르, 삐낭, 멀라카를 장악한 뒤 영국의 말레이 반도로의 세력확장은 삐락 주를 기점으로 1874년에 본격적으로 시작된 점을 감안할 때 그 행보는 점진적으로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 같은 점진운동은 무엇보다도 말레이 반도에는 통합된 효율적인 통치체제가 부재하다는 영국 관료들의 인식에서 비롯되었다. 특히 영국 식민성은 이혼 명의 절대군주가 각각의 주에서 서로 다른 통치체제를 통해 통치권을 행사하고 있고, 이들의 권한은 특히, 세속적인 영역에 있어 제한적일 뿐 만 아니라 각각의 주에서도 권력이 지방관료에게 분산되어 있어, 그들간의 잦은 권력다툼이 벌어지는 말레이 반도에 식민통치를 위한 효율적인 통치체제를 신설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판단 하에 적극적인 진출을 꺼려했다. (Emerson 1964: Cowan 1961: 163; Gullick 1965) 따라서 최소한의 행정적인 변화를 통해 효율적인 식민지배를 구사하려는 전략으로 말레이 반도에 대한 합병을 통한 직접통치 방식은 처음부터 배제되었다. 그 결과 영국은 기존의 전통 말레이 통치체제를 가급적 유지하는 간접통치 방식을 도입하게 되었다.

이 같은 맥락에서 술탄을 매개로 말레이 사회에 대한 영국의 간접지배의 도입은 술탄제의 정치적 효용성에 대한 인식에서 출발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이 1874년 삐락 주를 시작으로 1919년 조호르 주를 식민지체제에 편입시킬 때까지 약 반세기 동안에 걸쳐 술탄제를 통한 간접지배를 확립시킨 이유는 무엇일까? 식민지배 초기 삐락과 삐항 주에서 발생한 사건에서 술탄이 보인 역할에서 그 물음에 대한 답을 구할 수 있다.

1874년 초에 삐락 주의 술탄과 체결한 뽕꼬르 조약에 따라 영국은 그 해 말 버치(J. W. W. Birch)를 첫 주재관으로 임명했다. 그러나 버치는 그의 임기를 겨

우 일년 남짓 채우고 말레이인에 의해 살해되었다. 밀너는 버치가 살해된 주요 동기를 술탄에게 단지 조연만을 하기로 한 협약의 내용을 넘어 전통 말레이 지배계층의 권한을 무시한 채 새로운 행정제도를 급진적으로 도입하려한 그의 시도와 연관짓고 있다. 부임직후 버치는 자신이 직접 지방관료를 임명해 그들을 철저히 감독할 것을 결정했다. 술탄 압둘라와 고위 관료들은 버치의 그 같은 행보를 자신들의 주에 대한 영국의 직접통치를 위한 전조로 간주하면서 싱가포르에 있는 총독에게 주재관이 빼락 주를 위해 법을 제정하는 것은 땡꼬르 조약에 위배된다는 내용의 항의 서신을 보냈다. 이에 대한 총독의 답변은 주재관은 조약의 내용을 준수해야 한다고 재확인하는 한편, 빼락 주의 행정 책임은 말레이 의회(Malay council)의 도움을 받아 영국 관료가 맡아야 한다고 암시했다. 그러는 동안 1875년 10월에 빼락 주는 영국에 의해 합병될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다(Milner 1985b: 169).

술탄과 관료들의 그러한 의구심은 비슷한 시기에 주재관이 “영국 관료들이 빼락 주의 판사 역할을 담당해 모든 범죄를 처벌하며, 또한 세입을 징수하고 주의 행정 전반사를 관장할 것”이라는 내용의 공포문을 발표하자 더욱 극에 달았다. 바로 이 시점에 빼락 주의 지배계층은 버치를 살해해 조약에 어긋나는 영국의 지배를 받아들일 수 없음을 확고히 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압둘라 술탄의 유배를 포함해 빼락 주는 영국의 군대에 의해 몇 개월 간 곤욕을 치렀으나, 이 사건 직후 영국의 식민성이 싱가포르의 총독에게 “합병은 물론 술탄의 이름으로 영국 관료에 의한 빼락 주의 지배를 허락할 수 없다”는 전문을 보낸 점으로 보아 이 사건은 분명 다른 말레이 주들과 조약을 체결할 때 영국 관료들의 입장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Milner 1985b: 169-170).

첫 주재관이 임명된지 삼 년 후인 1891년에 빠항 주에서 발생한 소요는 말레이 전통 지배체제에 있어 술탄제의 중요성을 보다 명확히 보여준 사건이었다. 빠항 주의 소요는 술탄 아흐맛(Ahamd)이 영국의 주재관 제도에 불만을 품자 술탄의 견해를 지지하는 말레이 관료인 다또 바흐만(Dato Bahman)과 또 라자(To Raja)가 주동이 되어 일으켰다. 비록 술탄이 그 소요를 공개적으로 지지

하진 않았지만, 술탄이 소요 진압에 미온적인 태도를 견지했고, 더욱이 소요의 명분을 제고(提高)하기 위해 그의 이름이 이용된 점으로 보아 거사 전에 이미 술탄과 바흐만을 포함한 그의 관료들 간에 단합결의가 있었던 것이 분명하다. 이 같은 사실은 술탄이 영국 관료들에게 말레이인에 대한 자신의 위상과 역할을 인지시키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다(Aruna 1996: 133-170; Milner 1985b: 170-171).

1892년 4월에 또 라자가 내륙을 대대적으로 공격할 거라는 소문이 나돌았다. 이때 술탄은 아마도 영국 관료들이 그에게 만약 소요가 더 이상 확산되면 그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협박에 순응해 그 공격을 저지하기로 결심했다. 술탄은 또 라자에게 사신을 보내 만약 그가 소요에 가담하면 그것은 군주에 대한 반역, 즉 더러하까라고 경고했다. 또한 술탄은 주재관에게 갑옷을 내주면서 바흐만의 소요에 동참해 군주에게 반역하는 무리는 처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술탄이 이 같은 태도를 보이자 그 소요의 기세는 약화되기 시작했다(Aruna 1996: 133-170; Milner 1985b: 171).

1892년 4월을 기점으로 빠항 주의 소요는 진정국면을 맞이했으나, 그 소요는 다른 이웃의 주들로 도주한 관료들을 중심으로 1894년에 재발했다. 특히 뜨랭가누 주로 근거지를 옮긴 빠항 주의 소요는 술탄의 지지를 상실하자 이슬람 성인인 옹꾸 샤이드(Engku Sayid)를 새로운 지도자로 맞이했다. 이로 인해 소요는 이교도에 대한 무슬림의 성전(jihad)을 강조하는 이슬람적 성격을 띠었다. 그러자 술탄은 소요의 진압을 위해 원정길에 오른 주재관에게 불멸의 부적으로 자신이 사용했던 팔찌를 주었다. 그는 또한 이슬람을 기치로 소요를 일으키는 것 역시 군주에 대한 반역이라고 규정했다. 그러자 옹꾸 샤이드를 중심으로 한 소요 또한 지지력을 상실한 채 1895년에 그 막을 내렸다(Aruna 1996: 133-170; Milner 1985b: 171-172). 이처럼 빠항의 소요사태는 영국 관료에게 소요의 확산과 진압에 군주의 역할이 절대적이라는 사실을 확인시켜주었다.

베락과 빠항 주의 소요사태는 군주제를 중심으로 하는 지배와 피지배관계가 말레이인의 세계관에 얼마나 확고하게 자리잡고 있는가를 명백히 보여준

사건이었다. 이를 통해 영국 관료들은 말레이 사회에 있어서 군주의 위상과 역할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게 되었으며, 그 결과 군주제는 2차 세계대전 이전까지 영국관료들이 말레이 반도를 지배하는 동안 가장 각별한 관심의 대상이었다. 따라서 1874년 빼락 주에 간접지배 방식의 도입은 군주제의 정치적 효용성에 그 바탕을 두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그 지배방식이 확립되는 데는 술탄의 위상과 역할이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1920년대와 30년대에 걸쳐 영국이 시도한 여러 차례의 직접통치 시도가 매번 술탄의 완강한 저항에 부딪쳐 무산되었던 점을 고려할 때 간접지배의 정착과 시행에 있어 술탄의 역할을 폄하할 수 없다(Yeo 1982; Stockwell 1979: xiv).

영국의 관료였던 프랭크 스웻햄(Frank Swettenham)은 주재관 제도를 축으로 하는 간접지배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말레이 관습과 전통을 그대로 보존하고, 새로운 지배체제에 도움이 되는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풀어 그들의 이익을 보장하는 한편 좋은 정부와 개혁적인 정책이 그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을 가르친다(Andaya 2001:174 재인용).

이 같은 개념을 바탕으로 하는 간접지배 방식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맨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는 주재관 제도에 직접적인 위협을 느끼는 말레이 지배계층, 즉 술탄과 그를 보좌하는 중앙 관료의 협조를 얻는 일이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수단으로 영국의 관료가 관심을 쏟아야 할 당면과제는 의무노역제도의 폐지와 중앙 재정체제의 도입으로 인해 수입을 상실한 말레이 지배계층에게 재정적인 보상을 해주는 일이었다. 따라서 영국 식민정부는 술탄에게 그들의 외관적 위상을 유지하기에 충분한 급여를 제공하는 한편 관료들을 식민지 체제의 하급관료로 편입시켜 그들에게 급여 또는 연금을 제공했다(Andaya 2001: 175).

그밖에도 식민지 정부는 술탄에 대한 각별한 예우, 특히 성대한 즉위식을 통해 그들의 협조를 얻으려 노력했다. 이처럼 그들에게 협조적인 술탄을 적극

적으로 후원하고, 중앙 관료들을 식민지체제에 편입시킨 영국 식민지 정부의 조치는 왕권에 대한 잠재적인 도전세력으로부터 술탄을 자유롭게 할 뿐 만 아니라 그에게 관료의 급여 또는 연금에 대한 결정권을 줌으로써 그들의 전통적인 위상을 더욱 강화시키는 결과를 낳았다(Roff 1980: 15). 이와 관련해 꾸 께이 김(Khoo Kay Kim)교수는 다음과 같은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군주 위상의 안전 차원에서 영국 식민지배 동안 군주의 존재는 실제로 전통시
기의 어느 다른 때 보다 멀라까의 법전인 『운당 운당 멀라까』와 『스자라 멀라
유』가 구현하고자 했던 이상을 더 근접하게 실현했다(Khoo 1991: 21).

그렇다면 술탄은 단지 그들의 외관적 지위의 유지와 왕권의 안전에 만족하여 영국 식민지정부에 협조했을까? 이로 인해 사가들의 일반적인 견해처럼 (Andaya 2001: 175; Roff 1980: 17-19) 과연 술탄은 자신의 주에서 종교와 관습에 관한 권한을 제외하고 모든 행정적 실권을 주재관에게 빼앗기고 명목상의 통치자로 남아있었는가? 『스자라 멀라유』는 이 같은 의문에 대한 궁극증을 풀어 줄 구절을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

통치자는 관습적으로 행정의 문제에 직접 관여하기보다는 다만 좋은 결과를 얻는데 관심을 기울인다(Sejarah Melayu: 95).

이 구절이 암시하는 바와 같이 전통 말레이 사회에서 사실상 술탄은 의식 또는 의전과 관련된 일에 관심을 집중하는 한편 행정제반사는 중앙 관료들이 담당했다. 따라서 슬랑오르 주의 한 술탄이 “자신은 행정적인 일과 관련해 문제가 없다”(Milner 1985b: 164 재인용)라고 선언한 예에서 보듯, 식민지배 하에서 예전처럼 관료에게 호칭과 직위를 수여하고, 종교관료를 임명하고, 국가의 다양한 공식적인 전통 의식 행사를 주관하는 등 술탄은 종교와 관습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면서(Andaya 2001: 175; Milner 1985a: 26) 자신들의 전통적인 위

상과 역할에 위협을 느끼지 않는 한 영국 관료와 말레이 관료가 행정적인 일을 담당하는 것에 별다른 문제의식을 갖지 않았다. 이 같은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외관상 지위의 유지와 왕권의 안전을 술탄이 식민지 정부에 협조한 본질적인 동기로 볼 수 없으며, 식민지배 하에서 그가 행정권을 박탈당해 명목상의 통치자로 머물러 있었다는 견해 또한 술탄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적절한 해석으로 간주할 수 없다. 결론적으로 영국의 간접지배 방식의 도입은 전통시기의 술탄의 위상과 역할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그렇다면 영국의 식민지배가 일반 말레이 백성에게는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쳤을까? 이와 관련해 꾸 께이 킴교수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 대다수의 말레이인은 그들의 전통적인 거주지를 떠나지 않았다. 새로운 유형의 교통 및 통신수단은 더 이상 강에 의존하지 않았다. 따라서 주로 강가 주변에 운집해 살고 있던 말레이인 대부분은 20세기의 새로운 기술적인 발전에 영향을 받지 않았다. 말레이인 인구의 대다수는 (영국의 식민지배 하에서도) 계속해서 그 이전처럼 살았다. …… (Khoo 1991: 164).

이 사가의 표현대로 전반적으로 일반 말레이 백성은 식민지배 하에서 일어난 현대화 과정에 편입되지 못한 채 전통 사회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며 살았다. 20세기 말레이 사회의 “화석화”의 가장 중요한 원인 중 하나는 식민지 경제체제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영국 식민지정부의 정책과 관련이 있다. 자본주의를 태동시킨 후기 빅토리아 시대의 영국인은 한 사회의 가난 또는 낙후의 원인을 그 사회를 구성하는 인종의 게으른 속성 탓으로 여겼다. 따라서 그들의 시각에 “나태한” 말레이인은 식민지 경제체제의 운영에 적합하지 않다는 판단 하에 중국인과 인도인의 이주를 장려해 그들에게 광산 또는 재식농업 경제의 하부구조를 담당하도록 했다.

한편 영국 식민지 정부는 말레이 우대정책(pro-Malay policy)이란 미명 하에 이민족을 일시적 체류자로 간주한 반면 말레이인을 말라야(말레이 반도)의 주

인으로 대우했다. 따라서 전술한 바와 같이 술탄 및 지배계층의 전통적인 위상과 역할을 보장하는 한편, 말레이 전통사회의 문화를 보호한다는 기치로 대부분의 말레이인을 농촌에 머물게 하는 정책을 취했다. 그러나 사실상 말레이 우대정책의 근본 목적은 말레이 사회의 안정과 질서를 통해 식민지 수탈의 극대화였다. 이를 위해 식민지 정부는 말레이인의 지역적 이탈을 유발할 수 있는 여지를 봉쇄하기 위해 소규모의 상업작물을 재배하는 것조차 엄격히 제한하는 한편 단지 그들에게 자급자족을 위한 농업과 어업의 종사를 장려했다. 이처럼 결코 말레이 사회에 대한 급진적인 변화를 원하지 않는 영국 식민지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은 말레이인에 대한 교육의 목적 - “어부의 아들을 보다 나은 어부로, 농민의 아들을 보다 나은 농민으로” - 에도 잘 나타나 있다.

영국은 또한 간접 식민지배를 기저로 임대료의 징수, 지역 재판행정, 질서의 유지 등 말레이 사회와 직접적인 접촉이 요구되는 임무를 식민지 하급관료로 편입되어 종전엔 지방관료에게 예속되었으나 이젠 주재관의 명을 따르는 뱅홀루(penghulu)에게 담당케 했다. 이처럼 영국의 식민지배는 말레이인에 대한 지방의 행정사에 있어서도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하지 않았다. 그 결과 말레이 백성은 식민지배 하 현대화의 흐름 속에서 주변적인 위치에 머물며 여전히 전통 사회의 세계관을 유지한 채 살았다(Roff 1980; Milner 1985b: 173-174; Soh 1993: 12-18).

이상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영국의 간접 식민지배는 전통 말레이 사회에서 지배와 피지배관계의 한 핵심적인 세계관으로 자리잡은 말레이인의 존경과 정체성의 구심점으로서의 술탄의 위상과 역할을 약화시키기보다는 오히려 강화를 초래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 같은 현상은 분명 어느 정도 영국 식민지배에 대한 술탄의 능동적인 대응의 결과였다. 그 결과는 일본의 점령기와 전후 탈 식민지 시기에도 “유용한 과거” (serviceable past)로서 효용성을 지속적으로 발휘했다.

III. 일본 식민지시기 술탄의 위상과 역할

일본이 말라야를 점령하기 이전에 가장 관심을 가졌던 사안은 술탄과 이슬람에 대한 처리 문제였다.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Akashi 1969: 81).

- (1) 이슬람의 수장으로서 술탄의 위상과 역할은 어떠한가? 말레이인에 대한 그들의 정치적 위상과 역할은 어떠한가?
- (2) 말레이 사회의 정신적 리더로서 그들에게 어느 정도의 권한을 보장해 주어야 하는가?
- (3) 그들이 권한을 포기하도록 어떻게 설득해야 하는가? 그들의 위상과 역할을 이용해 말레이인이 일본에게 협력하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 (4) 이슬람과 이와 관련된 전통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이 같은 의문점에 대해 일본의 정책 입안자들은 1941년 3월 남부 점령지의 행정 원칙(Principles of the Administration of Occupied Southern Areas)을 통해 아래와 같은 개괄적인 의견을 개진했다.

술탄을 군사정부의 감독 하에 명목상의 통치자로 남겨둔다. 군사정부는 점령지의 질서가 잡히면 자문기구(advisory system)로 대체한다. 말레이인의 마음을 사기 위해 종교의 자유와 관습을 철저히 존중한다(Akashi 1969: 82).

이처럼 일본은 말레이 무슬림의 협력을 얻기 위해 이슬람을 처리하는 문제와 관련해 구체적인 계획 없이 말라야를 점령했다. 그들은 이 문제와 관련해 단지 술탄의 처리에 관심을 두는 한편, 종교학자(ulama) 및 까움 무다(kaum muda)로 알려진 이슬람 개혁주의자 등 이슬람 집단에 대한 어떠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 왜냐하면 일본은 자바에서와는 달리 말레이인의 협력

을 구하기 위해 민족주의적인 목적으로 말라야의 이슬람 집단의 이용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요이치 이따가끼(Yoichi Itagaki)는 그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일본은] 말라야에는 종교적, 정치적 차원에서 대중에게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할 종교지도자가 부재하다고 판단했다. 왜냐하면 [말라야에는] 자바의 무함마디아(Muhammadiyah)나 나흐다똘 올라마(Nahdatul Ulama) 또는 아제의 뿌사(PUSA) 같은 대중에게 영향력이 강한 이슬람 조직이 없었기 때문이다(Itagaki n.d.: 21).

그 결과 일본의 말라야의 이슬람에 대한 정책은 점진적으로 수립되었다. 아래의 문서는 그 사실을 뒷받침해준다.

[말라야의] 무슬림을 특별히 고려할 정책은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혁신적인 종교정책을 취하는 것은 시기상조이다. 우리의 종교정책은 그 지역의 현실에 따라 점진적으로 수립되고, 시행될 것이다(Benda 1965: 32).

점령 첫해에 와타나베 와따루(Watanabe Wataru) 대령이 이끄는 말라야 군사행정부(MMA: Malayan Military Administration)는 심지어 술탄에게조차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는 “우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술탄을 적절히 예우하며 그들을 이용하려는 계획은 가당치 않다”(Akashi 1969: 85)며 중앙 군부당국의 계획에 대해 냉소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 결과 비록 술탄은 종교의 수장으로서 그들의 지위를 유지했지만, 일본은 영국이 했던 것처럼 그들에게 급여를 제공하거나 다른 특별한 지위를 보장하지 않았다. 더욱이 1942년 초 종교위원회(Majlis Ugama)의 해체로 술탄은 종교관료를 임명하는 권한마저 상실했다.

그러는 동안 전세가 불리해지자 일본은 말라야를 포함한 모든 점령지역에서 그들의 정책 전반을 재고하기 시작했다. 1942년 말경 군부의 문서를 통해

일본의 정책 변화 조짐을 엿볼 수 있다.

점령지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필요성이 배가되었다. 각각의 군사정부는 점령지의 지도자들을 취급함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그들의 위상이 제고 되어야 한다(Benda 1965: 47).

중앙 군부의 새로운 정책에 따라 말라야의 군사정부는 술탄과 이슬람 지도자들에 대한 예우를 재고하기 시작했다. 1943년 1월에 싱가포르에서 말라야와 수마뜨라의 술탄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가 열렸다. 일본은 이 자리에서 술탄의 위상을 제고할 것을 다음과 같이 약속했다.

- (1) 그들을 술탄으로 인정한다. (2) 그들을 존중하며 이슬람의 수장으로 대우한다. (3) 그들에게 영국 식민지 정부가 제공했던 만큼의 급여를 제공한다. (4) 그들의 재산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The Syonan Shimbun: 1943/1/22).

같은 해 4월 5일과 6일 이틀 간에 걸쳐 말라야 군사정부의 지원 하에 이슬람 지도자들을 위한 회의가 열렸다. 말라야의 각 주와 수마뜨라에서 온 종교 지도자들에게 일본은 전쟁의 부담과 식량 및 생필품의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을 함께 나눌 것을 요구하면서 그들의 이슬람과 관습을 존중할 것을 약속했다(Akashi 1969: 101).

1944년 8월에서 10월 사이에 말라야의 군사정부는 술탄이 종교위원회를 재구성하는 것을 허락하여 그들의 종교 관료에 대한 임명권을 회복시켜 주었다. 또한 일본은 각주에 총독을 의장으로 하는 자문 위원회를 설립해 술탄을 부의장으로 임명했다(Bamadhaj 1975: 171). 뿐만 아니라 같은 해 11월 꾸알라 강사르에서 각주의 종교 위원회가 참석하는 회의를 개최해 술탄의 정치적, 종교적 권한을 더욱 확대시켰다. 이 회의에서 일본은 술탄을 위시한 종교 지도자들에게 식량증진운동과 전쟁의 승리를 위해 그들의 협조를 당부하는 한편 참석자

들이 종교축제, 범국민 차원의 중등학교 수준의 종교교육 등 말레이 무슬림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주제들을 자유롭게 토의하도록 허락했다(*The Syonan Shimbun*: 1944/12/18).

일제 하에서 술탄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전처럼 예우를 받는 대가로 그들은 말라야 군사정부의 대변자가 되었다. 따라서 그들은 말레이 무슬림과 잦은 접촉을 통해 그들에게 식량증진운동과 전쟁을 위한 일본의 여러 정책에 적극 협조할 것을 당부했다. 1944년 싱가포르에서 일본이 발행한 쇼난(*Syonan*: 일제 하 싱가포르의 명칭) 신문은 군사정부에 협조하는 삐락 주 술탄의 본보기를 다음과 같이 기사화 했다.

삐락의 술탄 압둘 아지즈(*Abdul Aziz*)는 궁궐 앞 토지 40에이커 면적 중 짧은 시간 내에 30에이커 면적에 타피오카, 콩, 삐빠야, 목화, 파인애플 등을 경작했다. 술탄은 농장에 나가 그것들을 직접 경작했다. 그는 약 60명의 신하들과 함께 열심히 일했다(*The Syonan Shimbun*: 1944/1/9).

전쟁의 승리를 목적으로 말레이인의 협력을 얻기 위한 일본의 노력은 이슬람, 특히 이슬람의 수장인 술탄에 대한 정책에 국한되었다. 따라서 일본 군사정부의 식민통치 하에서 술탄의 역할은 이전과 비교해 볼 때 매우 제한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점령시기에 말레이 사회에서 술탄의 위상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약 3년 8개월 간의 일본 점령시기에 대부분의 말레이인은 이전처럼 농촌에 거주했다. 일본은 말라야의 경제자립을 위해 식량 자급자족정책을 실시했다. 이를 위해 일본은 말레이인에게 쌀 생산의 증진을 강요하면서 전쟁으로 인해 상업작물, 특히 고무의 수출이 중단되자 고무나무를 베어버리고 그 재배지를 벼농사와 타피오카, 옥수수, 고구마 등의 부수 작물을 위한 경작지로 전환시켰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말레이 출판물을 통해 농촌의 생활을 미화하면서 도시에 거주하는 소수의 말레이인에게 그곳으로 이주할 것을 권유했다(*The Syonan Symbun*, 1944/1/8; *Ishak* 1943).

그러나 이 경제자립 정책은 전쟁 이전 말라야의 상황을 고려할 때 무모한 조치였다. 전쟁 이전 말라야에서 단지 북부지역의 세 개 주인 이다, 빠르리스, 끌란탄만이 쌀을 잉여생산 했으며, 반도 전체의 자급자족율은 37.5퍼센트에 불과했다. 따라서 그 부족분은 태국과 미얀마로부터 수입에 의존하는 형편이었다(Mohammad Nadzri 1987/88: 1).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목표와 상반되게 일본은 1943년 7월에 곡창지대인 이다, 빠르리스, 끌란탄을 포함한 네 개의 주를 태국에 양도했다(Lee 1981: 113). 이 같은 상황 속에서 말라야의 경제자립정책은 실현가능성이 거의 희박했다. 결국 일본의 자급자족 정책은 말라야의 심각한 식량부족을 초래해 말레이인을 기아에 허덕이게 만들었다.

전쟁 중 농촌 말레이인의 생계를 위협한 또 하나의 원인은 일본 군사정부의 강제 식량공출이었다. 말레이인은 일본이 정한 쌀 가격으로 그들의 수확량의 대부분을 강매 당했다. 이 같은 조치는 농촌의 자급자족을 파괴해 말레이 농민의 생계를 일본의 배급에 의존하게 만들었다(Akashi 1985: 61). 그러나 그 배급마저도 불규칙적으로 시행되어 말레이인은 생존을 위해 타피오카 등의 구황작물에 의존해야 했다. 말레이인은 일제시기를 “자만 우비 까유”(Zaman Ubi Kayu: 카사바를 주식으로 한 시기)라 부른 데서 전쟁 중 이들의 식량난의 심각성을 엿볼 수 있다(Abdul Aziz 1980: 82).

일본 군사정부의 가혹한 착취에 더해 전쟁 중 중국인은 말레이인의 생계를 여러모로 위협했다. 식량을 직접 생산하는 농촌의 말레이인과 비교해 경제적 궁핍은 주로 급여 또는 상업에 생계를 의존하던 도시의 중국인에게 더욱 심각했다. 그들은 주로 세 가지 요인, 즉 생필품의 부족, 암시장의 극성 및 일본의 통화 남발로 인한 극심한 인플레이의 가장 큰 피해자였다(Foo 1986/87: 52-76). 여기에 더해 일본의 식량증진 운동은 도시의 중국인을 말레이인의 전통 거주지인 농촌으로 이주하도록 강요했다. 이로 인한 도시 중국인의 농촌으로의 이동은 영국 식민지배 하에서 형성된 인종집단에 따른 경제의 역할분담을 일시에 흔들어 놓았다. 생존마저 위협을 받는 심각한 경제난 속에서 말레이인의 전통적인 생활 터전에 중국인의 갑작스런 침투는 말레이인의 생존경쟁을 더욱 심

화시키며 그들의 고통을 배가시켰다(Akashi 1985: 61).

농촌 말레이인에게 몰아닥친 또 다른 중국인의 위협은 항일 공산계렬라인 말라야 인민항일군(MPAJA: Malayan People's Anti-Japanese Army)으로부터 왔다. 이들 대다수는 “나태한” 말레이인에 대한 인종적 우월감을 느끼며, 그들의 생활관습을 비하하는 민족주의 색채가 강한 중국인으로 구성되었다. 그 계렬라들은 빈번히 농촌 말레이인의 식량을 약탈하고, 과중한 세금을 요구하면서 말레이인의 생계를 위협했다. 더욱이 그들은 일본의 협력자로 의심받는 말레이인을 무참히 살해하기도 했다(Akashi 1985: 67-68).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본점령 시기에도 말레이인 대부분은 이전처럼 그들의 전통적인 농촌에 거주했다. 이 기간 중 현대화의 기류와는 역으로 도시에 거주하던 소수의 도시 말레이인조차도 일본의 정책에 따라 농촌으로 이주하게 되었다. 또한 일본 군사정부 하에서 말레이 무슬림에게 허락된 종교의 자유는 유래 없는 고통을 겪는 말레이인에게 정신적으로 커다란 안식을 주었다. 또한 이를 통해 그들은 전쟁 중에도 “말레이인다움”(Malay-ness)을 유지할 수 있었다.

15세기 초에 멀라카 왕국이 이슬람을 받아들여 여러 면에서 국가와 사회의 틀을 재구성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통 말레이 사회의 운용에 있어 이슬람 유입 이전의 전통과 관습이 이슬람의 교리보다 더 우선시 되었다(Khasnor 1999: 136-148). 19세기 말 빠항의 소요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말레이 백성은 이슬람 성인보다는 군주의 명령을 더욱 중요시 여긴 사실 또한 전통사회에서 이슬람의 위치를 대변한다. 사실상 이슬람이 말레이인의 민족주의 운동을 포함한 정치적 행동에 이념적인 바탕으로 자리잡기 시작한 때는 1920년대이다(Milner 1985b: 172).

일제 하에서 경제파탄과 중국인의 위협으로 인한 말레이인의 감내하기 어려운 고통을 완화시켜준 유일한 통로였던 이슬람은 20세기 초에 받아들인 말레이 사회의 종교적 민족의식을 제고하면서 말레이인의 민족 정체성에 보다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다(Soh 1993: 151-163). 그 결과 이슬람의 수장인 술

탄은 분명 말레이인의 정신적 지주로서 그 정체성의 핵심적 지위와 함께 백성에게 보다 깊은 경외의 대상이 되었다. 이 같은 맥락에서 술탄을 중심으로 한 일본의 이슬람에 대한 정책은 분명 의도적이진 않았지만 오히려 영국 식민지 시기를 거치면서 지속적으로 유지된 전통시기의 지배와 피지배 관계에 대한 기존 말레이인의 세계관에 이슬람의 정신적인 수장으로서의 술탄의 위상을 보강시킨 결과를 초래했다고 볼 수 있다.

IV. 탈 식민지시기 술탄의 위상과 역할

전쟁 직후 말라야를 재점령한 영국은 1945년 10월 10일 런던에서 말라야 연합(Malayan Union)안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이 안은 전쟁 이전의 연방말레이 주(Federated Malay States: Perak, Selangor, Pahang, Negeri Sembilan)와 비연방말레이 주(Unfederated Malay States: Kedah, Perlis, Kelantan, Trengganu, Johor) 및 싱가포르를 제외한 해협식민지(Straits Settlements: Singapore, Melaka, Penang)를 하나로 통합해 총독을 정점으로 하는 강력한 중앙정부 체제로 편입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말레이 술탄은 자신들의 주에 대한 모든 통치권을 영국의 식민지 정부에 양도해야 했다. 뿐만 아니라 말라야 연방 안은 비 말레이인에게 말레이인과 동등한 시민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Lau 1991). 요약해서 이 안은 전쟁 이전 영국 식민지 정부가 “말라야는 말레이인의 나라”라고 강조했던 말레이 우대정책을 전적으로 파기하려는 조치였다.

그렇다면 전쟁직후 영국은 어떤 동기에 의해 말레이 우대정책을 파기하려 했을까? 본 연구의 주제와 관련해 두 가지 주요 동기를 꼽을 수 있다. 첫 번째 동기는 영국이 식민지의 행정적인 효율을 제고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되었다. 전쟁 이전부터 영국은 말레이 주들을 직접통치 하려는 시도를 여러 차례 했다. 그 중 하나가 탈 중앙집권화 또는 분권화 정책이었다. 말라야의 각각 다른

정부를 통제 또는 상대하면서 행정적인 비효율성에 대한 불만을 느끼고 있는 관료와 사업가의 요구에 부응해 영국은 1920년대와 1930년대에 연방말레이 주 정부의 분권화를 추진했다. 외견상 이 시도는 주재관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연방말레이 주의 행정체제를 고문관(advisor)제도 하에서 비교적 행정적으로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는 비 연방말레이 주와 동일한 차원으로 전환하려는 조치였다. 그러나 사실상 이 분권화 시도는 일차적으로 행정의 독립성과 관련해 연방말레이 주 술탄들의 불만을 완화시키는 동시에 비 연방말레이 주 술탄들의 의구심을 사지 않으려는 궁극적으로는 말라야의 모든 주를 통일된 행정체제로 재 중앙집권화하려는 영국의 전략적인 서곡이었다(Yeo 1982; Stockwell 1979: xiv). 그러나 이 같은 시도가 중앙집권화를 강력히 반대하는 술탄의 저항에 직면해 성사되지 못하자 술탄제를 “시대착오적인 제도”로 간주하는 영국 식민성의 개혁적인 관료들은 이미 전쟁 이전부터 술탄에 대해 강한 불만과 회의를 갖고 있었다(Lau 1989: 223-224). 그들에게 전쟁 직후 새로운 환경은 전부 더 그들이 의도했던 대로 식민지체제를 재구성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영국이 말레이 우대정책을 파기하기로 결정한 또 하나의 동기는 일본이 말라야를 침략하기 직전 술탄이 보인 태도와 관련이 있다. 영국은 일본의 말라야 점령에 임박해서 술탄을 호주 또는 인도의 안전한 장소로 피신시키려 했으나, 그들은 자신들의 백성과 유리되는 것에 강한 거부감을 표시하며 영국의 제의를 거절했다. 더욱이 영국은 싱가포르의 함락 직후 술탄이 일본과 협력했다는 다음과 같은 보고를 받았다.

말라야의 모든 말레이인을 대신해 아홉 명의 술탄은 4월 11일 야마시마(Yamashita) 준장을 방문해 일본의 황제에게 충성을 맹세했다(Colonial Office 또는 CO 717/147).

술탄의 이러한 친일 행동은 전쟁 이전 말레이 우대정책을 근간으로 그들의 위상과 역할에 지대한 관심을 기울였던 영국 정부에게 분명 심각한 배신감을

느끼게 한 한편 식민성의 관료들에게 술탄제를 유명무실화하는 구실을 제공했다. 결국 술탄의 친일 협력은 전후 영국이 말라야 연합을 도입하는데 있어 그들을 압박하는 빌미로 이용되었다.

말라야 연합을 도입하기 위해 영국이 취해야 할 우선적 과제는 말레이 술탄을 설득해 전쟁 이전에 체결한 조약을 파기하고 그들과 새로운 조약을 맺는 일이었다. 그러나 새로운 조약이 술탄의 모든 통치권을 영국 식민지 정부에 양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는 만큼 그들을 설득하는 문제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식민성은 그 임무를 1933년부터 1944년까지 탄자니아, 팔레스타인, 요르단에서 총독 그리고 고등 판무관(High Commissioner)으로서 풍부한 식민지경험을 쌓은 해럴드 맥마이클(Sir Harold MacMichal)에게 일임해 1945년 10월에서 1946년 1월 사이에 그의 임무를 완수하도록 했다. 영국은 새로운 조약의 체결을 관철시키기 위해 여러 방법을 이용했다. 그 중 하나는 술탄의 친일 협력 혐의를 조사하고, 전쟁 중 일본이 임명한 술탄을 인정하지 않음으로 해서 그들을 압박하는 술책이었다(Lau 1991: 100-101). 이로 인해 각 주의 술탄은 식민성의 면밀한 조사의 대상이 되었으며, 특히 일본에 협력한 술탄에 대한 영국의 조치는 매우 단호했다.

말라야의 영국 군사령부는 술탄의 지위가 면밀히 검토된 뒤, (그들의 처리를 위한 구체적인) 지시가 내려질 때까지 그들에 대한 어떤 공식적인 인정도 유보해야 한다(War Office 또는 WO 203/5462).

(친일 협력을 한) 술탄은 가능한 한 빨리 신병을 확보해 면밀한 감시를 받도록 하며, 그들은 적절한 예우와 함께 특별한 죄수로 취급될 것이다. 그들은 외부와 어떤 접촉도 허락되지 않을 것이다(WO 203/5624).

말라야의 민사담당 부관(Deputy Chief, Civil Affairs)인 윌란(H. C. Willan)이 1945년 9월 8일부터 29일까지 술탄을 개별적으로 만나 맥마이클의 원활한 임

무수행을 위한 사전 정지작업을 벌였다. 술탄과 면담을 통해 월란은 그들에게 친일 혐의를 상기시키면서 새로운 조약에 대한 그들의 저항을 사전에 약화시키려 했다. 그는 조호르 주의 술탄 이브라힘(Sultan Ibrahim)과 첫 번째 면담을 마친 뒤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했다.

술탄은 친일혐의를 거론했을 때 아무런 심적 동요를 보이지 않았다. 그는 그와 관련해 어떠한 죄의식도 느끼는 것 같지 않았다. 영국 정부가 새로운 헌법의 도입을 위해 그의 서명을 필요할 경우 술탄의 현 심적 상태를 고려해 접근해야 한다(WO 203/5635A, September 8, 1945).

슬랑오르 주의 똥꾸 무사 에딘(Tengku Musa Eddin)과의 면담 후 월란은 “면담을 시작할 때 그는 매우 초조한 기색을 보였으나 [영국에 협조할 경우] 그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을 설명하자 그는 안도했다”고 보고했다(WO 203/5635A, n.d.). 9월 17일에 월란은 궤다 주의 똥꾸 바드리샤(Tengku Badlishah)와의 면담을 통해 친일 혐의에 대한 조사는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은 술탄에게는 관대한 처분을 내릴 것을 암시했다(WO 203/5635 A, September 17, 1945). 이틀 뒤 그는 빠락 주의 술탄과의 면담에서도 같은 견해를 피력하자 술탄은 그에게 영국을 환영한다고 응답했다(WO 203/5635 A, September 19, 1945). 9월 29일 술탄들과의 면담을 모두 마친 뒤 월란은 그들로부터 새로운 조약에 서명을 받는 맥마이클의 임무는 별다른 어려움이 예상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말라야 연방 안이 발표된 하루 뒤인 1945년 10월 11일에 맥마이클이 말라야에 도착했다. 10월 18일에 맥마이클이 조호르 주의 술탄 이브라힘을 첫 번째로 만났을 때 그는 월란의 사전 작업이 매우 성공적이었음을 느꼈다. 술탄 이브라힘은 그에게 어떤 저항의 기색도 보이지 않았고, 이틀 뒤에 친근한 분위기 속에서 그는 맥마이클의 요구를 받아들여 새로운 조약에 서명했다. 23일에 그가 슬랑오르를 방문했을 때도 상황은 비슷했다. 끝판만, 빠르리스, 빠항

주에서도 그의 임무는 마찬가지로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월란의 예상과는 달리 느그리 슴빌란, 께락, II다와 뜨랭가누 주의 술탄들로부터는 저항을 받았으나 맥마이클의 임무는 큰 문제없이 진행되었다(Lau 1991: 109-116).

12월 21일까지 맥마이클은 몇몇 술탄들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아홉 명의 술탄 모두로부터 새로운 조약에 서명을 받는데 성공했다. 그러나 군복을 입은 맥마이클의 고압적인 태도를 포함해 영국이 새로운 헌법의 도입을 위해 이용한 협박적인 전략은 말레이 술탄들의 깊은 분노를 샀다. 1946년 1월 6일 맥마이클은 영국 정부의 말라야에 대한 모든 통치권의 행사를 보장하는 새롭게 서명된 조약을 갖고 영국으로 향하자 런던의 식민성은 그의 성공적인 임무에 고무되었다. 이제 영국 식민성은 말라야 연합의 도입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새로운 조약에 서명한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그 개혁안은 말라야의 여러 곳으로부터 공격을 받기 시작했다.

말라야 연합안 중 말레이인이 가장 민감한 반응을 보인 항목은 말레이 우대 정책의 파기와 함께 비 말레이인에게 그들과 동등한 시민권을 부여하는 법안이었다. 말레이인의 초기 저항은 그들과 아무런 협의도 없이 그들의 전통적인 출생 권리를 영국에게 양도한 술탄에 대한 적개심으로 표출되었다. 말레이 일간지인 『우뚜산 멀라유』(*Utusan Melayu*)는 “말레이 군주는 말레이인의 권리를 영국에게 팔아 넘겼고, 영국은 그것을 강탈했다”라고 군주와 영국을 동시에 신랄하게 비난했다(WO 203/6206). II다 말레이 연합(*Kesatuan Melayu Kedah: Kedah Malay Union*)의 대표적인 회원으로 런던에 탄원서를 보냈던 아요 빈 압둘라(*Ayob bin Abdullah*)는 일간지인 『마즈리스』(*Majlis*)를 통해 말레이 사회에 대한 술탄의 권위를 다음과 같이 직접적으로 문제삼기 시작했다.

이슬람의 교리와 말레이 관습에 따르면 군주의 권위는 백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군주가 백성과 협의 없이 맥마이클과 새로운 조약에 서명한 행위는 백성에 대한 책임을 저버린 처사며, 따라서 그 조약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Stockwell 1979: 66).

말레이 역사상 전례가 없었던 군주의 권위에 대한 그 같은 도전적인 견해는 사기들이 “조호르 음모”(Johor conspiracy)라고 명명한 조호르 주의 술탄 이브라힘에 대한 비난에서 극으로 치달았다.

새로운 조약은 조호르 주의 헌법에 위배되며, 술탄 이브라힘은 그 조약에 서명함으로써 그의 신하에 대한 임무를 저버렸다(Stockwell 1979: 66).

1946년 2월 1일에 조호르 바루의 아부 바카르(Abu Bakar) 사원에서 열린 한 규탄집회에서 조호르 말레이 협회(Persatuan Melayu Johor: Johor Malay Association)의 회장으로 조호르 음모를 주동한 다또 압둘 라흐만 빈 모하마드 야신(Dato Abdul Rahman bin Mohd. Yasin)은 이브라힘 술탄을 폐위하고 새로운 술탄을 옹립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술탄에 대한 공격수위를 한층 더 높였다. 집회 말미에 그 협회는 술탄의 권위를 위협하는 다음과 같은 강력한 결의를 했다.

…… 우리 조호르 바루의 말레이인은 술탄 이브라힘을 우리의 통치자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을 만장일치로 결의했다(CO 537/1550).

이 때 바뚜 빠하트의 말레이 관료였던 다또 온 빈 자파르(Dato Onn bin Jaafar: 이후 다또 온)가 조호르 말레이인의 술탄에 대한 극단적인 적개심을 완화시키기 위해 노력했으나 협회는 결국 그 결의 사항을 반도 전역에 배포함과 동시에 새로운 조약에 자발적으로 서명한 직후 런던으로 떠난 이브라힘 술탄에게 그 사항을 전문으로 보냈다.

새로운 조약에 대한 말레이인의 저항과 관련해 상기한 말레이 지식층의 논쟁은 두 가지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첫째로 이슬람과 말레이 관습을 바탕으로 술탄의 백성에 대한 권위를 논함으로써 그들은 밀실에서 서명된 그 조약이 적법하지 않음을 영국과 술탄에게 동시에 주지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이 같은 시도는 향후 말라야 연합의 도입을 반대하는 투쟁을 성공적으로 전개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선결과제는 조약에 서명한 술탄 자신들이 결자해지에 따라 그 서명의 유효성을 스스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는 판단에 근거를 두고 있다.

둘째로 그들은 전통 말레이 정치문화를 신중히 고려하고 있다는 점이다. 영국이 이미 술탄과의 협약을 통해 새로운 법안의 도입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들은 처음부터 그 법안에 대한 철회투쟁이 일반 말레이인의 전폭적인 지지 없이 성공을 거둘 수 없음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선 말레이 사회의 정치적, 종교적 구심점인 술탄의 역할과 협력이 필수적이었다. 따라서 말레이 지식층은 말레이 속담 — “만약 군주가 정당하면, 그에게 복종한다; 만약 군주가 사악하면, 그에게 반항한다(Raja adil, Raja disembah, Raja zalim, Raja disanggah)” —을 빌어 술탄의 권위에 대해 논쟁함으로써 그들이 군주에게 반역 또는 더러하까를 저지른다는 일반 말레이인의 오해를 불식시키려 노력했다(Cheah 1988: 13). 이 같은 맥락에서 조호르 사람들의 이브라힘 술탄에 대한 강한 분노를 진정시키려했던 다또 온의 의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그는 이어진 투쟁에서 술탄의 협력을 어렵지 않게 얻어낼 수 있었다.

말라야 연합에 대한 말레이인의 초기 저항이 술탄에 대한 비난에 집중되는 동안 그들의 저항을 정치적인 차원에서 조직화하기 위해 범 말라야 말레이 의회(Pan-Malayan Malay Congress)의 결성이 추진되었다. 이를 위한 전초 작업으로 다또 온은 조호르 주에서 반도 말레이 운동(Pergerakan Melayu Semenanjung; Peninsula Malay Movement)을 조직했다. 1946년 1월 24일 다또 온은 『마즈리스』를 통해 말라야의 말레이 협회들 간에 이견을 좁히고, 반도에서 말레이인의 운명을 논하기 위해 말레이인의 의회를 가능한 한 조속한 시일 내에 개최할 것을 제안했다(Ishak 1960: 61). 말레이인은 이민족, 특히 중국인과 영국으로부터 자신들의 정치적 주권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다또 온의 제의를 적극 환영했다.

그 결과 같은 해 3월 1일 싱가포르를 포함한 말라야 전역의 41개 말레이 협회로부터 약 200명의 대표가 꾸알라 룸뿌르의 술탄 술레이만 클럽(Sultan Sulaiman Club)에 모여 4일 간의 의회를 개최했다. 개막 행사에 이어 다또 온이 의장으로 선출되었고 이어 참석자들은 말라야 연합에 대한 효율적인 여러 투쟁방법을 토의했다. 이 자리에서 다또 온은 범 말라야 말레이 조직의 이름을 연합말레이 기구(Pertubuhan Melayu Bersatu: United Malays Organization)로 할 것을 제안했으나 의회 조직위의 서기인 자이날 빈 아흐맛(Zainal bin Ahmad)이 제의한 연합말레이 민족 기구 또는 암노(Pertubuhan Kebangsaan Melayu Bersatu: United Malays National Organization 또는 UMNO)가 채택되었다. 이 명칭은 다또 온의 제안에 “kebangsaan”이 삽입됨으로써 말레이인은 한 “인종”(race)일 뿐만 아니라 한 “민족”(nation)을 함의하고 있다(Ishak 1960: 61). 회의 말미에 참석자들은 말라야 연합의 도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의 결의문을 통과 시켰다(Malayan Security Service/Political Intelligence Journal 또는 MSS/PIJ: Serial No. 1: 1946).

- (1) 백서(White Paper)에 요약된 말라야 연합 안을 거부하며, 그 안의 철회와 전 쟁이전 상태(Status quo)의 유지를 요구한다.
- (2) 맥마이클과 술탄이 체결한 새로운 조약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 조약은 백성들과 어떠한 협의도 없이 체결되었기 때문에 주의 헌법에 위배된다.
- (3) 약 1,000,000불 상당의 말레이인 교육기금의 초기 자금을 조성한다.
- (4) 백서의 제안은 말레이인의 출생권을 박탈하는 것이다.
- (5) 영국 정부에게 현재 말레이 반도의 상황을 파악할 조사단의 파견을 요청한다.
- (6) 말라야는 말레이인의 나라다. 따라서 출생권을 이민족들과 공유할 수 없으며, 그에 대한 결정은 강제가 아닌 말레이인의 자결권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 (7) 말라야 연합의 도입에 반대의사를 전달할 사절단을 런던에 보낸다.

이러한 분위기에 편승해 조호르와 끌란탄 주의 술탄을 제외한 모든 주의 술탄이 3월 16일 삐락 주의 꾸알라 깡사르에서 개최된 연합안 반대 집회에 참석했다. 집회에서 술탄은 맥마이클이 그들에게 강압적인 방법을 통해 서명을 받았음을 확인하는 탄원서를 런던에 보내기로 결의했다(CO 537/1581).

그러나 말레이인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영국 정부는 예정대로 1946년 4월 1일에 말라야 연합의 도입을 강행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초대 총독으로 임명된 에드워드 겐트(Sir Edward Gent)가 말라야 연합의 출범을 위해 3월 29일 말라야에 도착할 예정이었다. 이 같은 영국의 강경 입장에 대응하기 위해 다또 온은 3월 30일에 꾸알라 룸뿌르에서 비상 회의를 개최하여 다음과 같은 다섯 개항의 결의문을 통과시켰다(MSS/PIJ Serial No. 1: 1946).

- (1) 그들의 권리 상실을 애도하는 표시로 모든 말레이인은 일주일 간 송콕(songkok)과 함께 하얀 소복을 입는다.
- (2) 총독 지문 협의회의 말레이 회원에게 전원 사퇴할 것을 요청한다.
- (3) 술탄은 총독의 취임식을 포함해 말라야 연합과 관련된 어떠한 행사에도 참석하지 않아야 한다.
- (4) 말레이 협회는 어떤 회의 또는 환영 연설을 통해서도 총독을 인정하지 않아야 한다.
- (5) 말레이인의 저항의사를 카이로의 아랍 동맹을 통해 국가연합기구(United Nations Organization)에 전달 될 수 있도록 한다.

비상회의가 끝난 직후 다또 온은 술탄을 방문해 결의문에 대해 설명했다. 그러나 말레이인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영국 정부는 원래의 계획에 따라 4월 1일 말라야 연합의 도입을 선포했고, 겐트가 초대 총독으로 취임했다. 말라야 연합 지문 위원회에 초빙된 말레이 지도층 인사들은 그들의 출생권과 자유의 장례식에 참석할 수 없다는 견해를 피력하면서 영국의 초대를 거부했다. 술탄 모두도 겐트의 취임식에 참석하지 않았다. 수 백 명의 말레이인이 그들

의 송쪽에 흰 띠를 두르고 술탄이 머물고 있는 호텔 앞에 운집해 “다울랏 뚜안 꾸”(Daulat Tuanku!: 술탄 만세!), “말레이인 만세!”를 외쳤다(Milner 1982: 79).

다또 온과 암노의 지도자들은 지속된 말라야 연합 반대 캠페인에서 상당한 대중적 지지를 바탕으로 영국 정부에게 말레이인의 의사를 무시하고 그 연합을 도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인식을 주지시키는 데 성공했다. 결국 영국은 1948년 2월 1일 말라야 연합을 대신해 말라야 연방(Federation of Malaya)의 도입을 선포했다. 전쟁 이전의 말레이 우대정책으로 회귀(status quo)를 의미하는 이 연방안의 도입은 말라야에서 술탄제를 중심으로 한 말레이인의 전통적인 특별한 권리 - “말라야는 말레이인의 나라”-에 대한 영국 정부의 도전에 대한 말레이인의 승리였다. 이 승리는 다또 온과 암노 지도층이 술탄의 협조를 통해 말레이인의 대중적인 지지를 확보함으로써 가능했다. 이 전후의 사건은 19세기 말 빼락과 빼항 주의 소요사태에서와 마찬가지로 말레이 사회에서 말레이인의 존경과 정체성의 구심점으로서 술탄의 위상과 역할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다. 다른 한편 말라야 연합안에 대한 말레이인의 투쟁을 격화시킨 가장 중요한 동기가 비 말레이인에게 그들과 동등한 시민권의 부여라는 점을 고려할 때 술탄은 이제 말라야에서 비 말레이 민족에 대한 말레이 민족의 권리의 수호자가 되었다(Ariffin 1993: 199). 이로써 전후 탈식민지 시기에 말라야 연합에 대한 투쟁을 거치면서 말레이 술탄제는 말레이 민족주의의 구심점 또는 상징으로서의 현대화된 새로운 위상과 역할을 부여받게 되었다.

V. 결론

영국 식민지배는 전통시기 말레이인의 세계관의 한 핵심으로 확고히 자리 잡은 술탄의 위상과 역할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영국의 간접 식민 지배 하에서 전통 말레이 사회가 별다른 체제 변동을 겪지 않는 동안 술탄은 이전처럼 종교와 관습에 따른 전통적인 권한과 역할을 통해 그들의 위상을 유

지할 수 있었다. 비록 식민지배 하에서 술탄은 재정권의 상실로 인해 그들의 위상을 유지하기 위해 영국의 경제적 후원에 의존해야 했지만, 이 시기에 전 통시기 왕권을 위협했던 말레이 중앙관료가 식민지 체제로 편입되는 한편, 술탄이 그들에 대한 급여 또는 연금의 결정권을 행사함으로써 오히려 그들의 전통적인 위상과 역할이 강화되는 현상을 보였다. 그러나 그 같은 현상은 전적으로 영국정부의 정책적 고려보다는 어느 정도 식민지배에 대한 술탄의 능동적인 대응에서 비롯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능동적인 대응의 결과가 이어 전 종과 전후 시기에 도 술탄이 말레이 사회에서 자신들의 위상과 역할을 지속적으로 유지시킬 수 있는 “유용한 과거”로서 효용성을 발휘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전쟁 중 주로 이슬람을 통해 말레이인의 협력을 얻으려는 일본의 기본 전략에 따라 술탄의 역할은 이슬람의 수장으로서의 종교사에 국한되었다. 따라서 영국 식민지배 하에서와 비교해 볼 때 이 시기에 술탄의 역할과 권한은 분명 약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전쟁 중 이 같은 변화는 전반적으로 말레이 사회에 대한 그들의 위상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대부분의 말레이인이 이전처럼 전통적인 농촌에 거주하는 동안 이들은 일본의 강제 공출, 기아 및 중국인의 위협 등으로 인해 유례 없는 고통을 겪었다. 그러나 이 시기에 말레이인은 종교의 자유를 통해 “말레이인다움”의 유지와 함께 그 고통을 다소나마 해소하는 한편 특히 중국인의 위협에 직면해 1920년대 이후 말레이 사회에 가시화되기 시작한 그들의 이슬람적 민족의식을 재고시켰다. 이 같은 상황에서 술탄에 대한 일본의 정책은 의도하진 않았다 할지라도 말레이인의 전통적인 세계관에 이슬람의 수장으로서 그들의 위상과 역할을 새롭게 각인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볼 수 있다.

전후 탈 식민지시기에 1920년대 말레이 사회에 새롭게 등장한 사회 계층인 신 말레이 지식인, 특히 영어교육지식인이 중심이 되어 대 말라야 연합 투쟁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다또 온과 압노의 지도자들은 식민지배를 거치면서도 지속적으로 유지된 전통 말레이 사회의 세계관의 한 핵심 축인 술탄의 정치,

사회적 위상과 역할을 적절히 활용했다. 이로써 그들은 말레이 대중의 적극적인 지지를 끌어내 그를 바탕으로 결국 말라야에서 말레이인의 전통적 권리를 훼손하지 않은 채 영국과 성공적인 독립협상을 진행할 수 있었다. 그 과정에서 술탄의 전통적인 위상과 역할은 다민족 사회에서 비 말레이인에 대한 말레이인의 특별한 권리를 보호하는 말레이 민족주의의 구심점 또는 상징으로 새롭게 자리매김되어 현재까지도 그 정치, 사회적 효용성을 유지하고 있다.

주제어 : 술탄, 술탄제, 민족 정체성, 이슬람, 말레이 민족의식, 영국 식민지배, 일본 식민지배, 탈 식민지화, 말라야 연합, 암노, 동학, 유용한 과거

참고문헌

- Abdul Aziz Hitam. 1980. "Shamsuddin Salleh." in *Sastera dan Sasterawan*, Abdul Haji Nawang (ed.). Kuala Lumpur: Persatuan Sejarah Malaysia.
- Abdul Rahman Hj. Ismail. 1985. "Kewibawaan Mutlak Raja dan Ketaatsetiaan Mutlak Rakyat kepada Raja: Satu Penilaian Semula Tentang Lunas Perhubungan Raja - Rakyat Masyarakat Melayu Tradisional di dalam Kitab-Kitab Sastera Sejarah Melayu." *Kajian Malaysia* 3 (1): 32-57.
- Abdullah bin Abdul Kadir. 1969. *The Hikayat Abdullah. An Annotated Translation* by A. H. Hill. Singapore: Oxford University Press.
- Akashi, Yoji. 1969. "Japanese Military Administration in Malaya - Its Formation and Evolution in Reference to Sultans, the Islamic Religion, and the Moslem-Malays, 1941-1945." *Asian Studies* 7(1): 81-110.
- , 1985. "The Japanese Occupation of Malaya: Interruption or Transformation?." in *Southeast Asia under Japanese Occupation*, edited

- by Alfred W. McCoy. New Haven: Yale University Southeast Asia Monograph Series No. 22: 54-75.
- Andaya, L. Y. 1975. *The Kingdom of Johor, 1641-1728*. Kuala Lumpur.
- Andaya, Barbara W. and Leonard Y. Andaya. 2001. *A History of Malaysia*. London: Palgrave.
- Ariffin Omar. 1993. *Bangsa Melayu: Malay Concepts of Democracy and Community, 1945-1950*. Kuala Lumpur: Oxford University Press.
- Aruna Gopinath. 1996. *Pahang, 1880-1933: A Political History*. Malaysian Branch of the Royal Asiatic Society Monograph No. 18.
- Bamadhaj, Halinah. 1975. "The Impact of the Japanese Occupation of Malaya on Malay Society and Politics." M.A. Thesis, Department of History, University of Auckland.
- Benda, Harry J., James K. Irikura and Koichi Kishi (eds.). 1965. *Japanese Military Administration in Indonesia: Selected Documents*. New Haven: Yale University Southeast Asia Studies, Translation Series No. 6.
- Carroll, Diana. 1999. "The *Hikayat Abdullah*: Discourse of Dissent." *JMBRAS*, Vol. LXXII, Part II: 92-129.
- Chamil Wariya. 1992. *Politik dan Raja*. Kuala Lumpur: Fajar Bakti.
- Chandra Muzaffar. 1979. *Protector?* Penang: Aliran.
- Cheah Boon Kheng. 1988. "The Erosion of Ideological Hegemony and Royal Power and the Rise of Postwar Malay Nationalism, 1945-46." *Journal of Southeast Asian Studies* 19 (1): 1-26.
- . 1991. *Feudalisme Melayu*. Minden: Siri Syarahan Perlantikan.
- . 1994. "Feudalism in Pre-Colonial Malaya: The Past as a Colonial Discourse." *Journal of Southeast Asian Studies* 25(2): 243-269.
- Colonial Office 537/1550. 1946. "Policy: Local Reactions to White Paper Statement of Policy, Johor."

- Colonial Office 537/1581. 1946. "HQ Malaya Command Weekly Intelligence Summary."
- Colonial Office 717/147. 1942. "Malay: Nine Sultans Declare Allegiance to Japan" (April 12).
- Cowan, C. D. 1961. *Nineteenth Century Malaya: The Origins of British Political Control*. London.
- Emerson, Rupert. 1964. *Malaysia: A Study in Direct and Indirect Rule*. Kuala Lumpur.
- Federal Constitution* (AS AT 25th JULY 2000). Kuala Lumpur: International Law Book Services.
- Foo Mei Lian Sylvia. 1986/87. "The Japanese Occupation of Singapore, 1942-45: Socio-Economic Policies and Effects." B.A. Thesis, Department of History,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 Gullick, J. M. 1965. *Indigenous Political Systems of Western Malaya*. London: Athlone Press.
- . 1985. "Kedah in the Reign of Sultan Ahmad Tajuddin II." *JMBRAS* 58: 107-133.
- . 1987. *Malay Society in the Late Nineteenth Century*. Singapore: Oxford University Press.
- . 1992. *Ruler and Residents*. Singapore: Oxford University Press.
- Hooker, M. B. 1972. *Adat Laws in Modern Malaya: Land Tenure, Traditional Government and Religion*. Kuala Lumpur: Oxford University Press.
- Ishak bin Tadin. 1960. "Dato Onn, 1946-1951." *Journal of Southeast Asian History* 1(1): 56-88.
- Ishak Haji Muhammad. 1943. "Sesat di-Hujung Balek Kepangkal." *Semangat Asia* (April).
- Ismail Hamid. 1991. *Masyarakat dan Budaya Melayu*. Kuala Lumpur: Dewan

Bahasa dan Pustaka.

- Itagaki, Yoichi and Koichi Kishi. n.d. "Japanese Islamic Policy Sumatra & Malaya." *Intisari* 2(3): 11-23.
- Kempe, John E. and R.O. Winstedt. 1948. "A Malay Legal Digest Compiled for 'Abd al-Ghafur Muhaiyu'd-din Shah Sultan of Pahang, 1592-1616 AD." *JMBRAS* 21(1).
- Kershaw, Roger. 2001. *Monarchy in South-East Asia: The Faces of Tradition in Transition*.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 . 1979. *The Changing Face of Monarchy in Southeast Asia: Three Political Portraits*. London: Contemporary Review.
- . 1993. "Shattered Symbiosis: The Road to Conflict between Malay Nationalism and Monarchy." *Internationales Asienforum* 24(3-4): 283-310.
- Kessler, Clive. 1978. *Islam and Politics in a Malay State: Kelantan, 839-1969*. Ithaca, New York and London.
- . 1992. "Archaism and Modernity: Contemporary Malay Political Culture." in Kahn, Joel S. and Francis Loh Kok Wah eds. *Fragmented Vision: Culture and Politics in Contemporary Malaysia*. pp.133-157.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 Khasnor, Johan. 1999. "The *Undang-Undang Melaka*: Reflections on Malay Society in Fifteenth-Century Malacca." *JMBRAS*, Vol. LXXII, Part II: 131-150.
- Khong Kim Hoong. 1984. *Merdeka!: British Rule and the Struggle for Independence in Malaysia, 1945-1957*. Petaling Jaya: Institute for Social Analysis(INSAN).
- Khoo Kay Kim. 1983. "Succession to the Perak Sultanate." *JMBRAS* 56: 7-29.
- . 1985. "Raja Lumu/Sultan Salehuddin: The Founding of the Selangor

- Dynasty.” *JMBRAS*, Vol. 58: 1-13.
- Khoo Kay Kim. 1986. “The Perak Sultanate: Ancient and Modern.” *JMBRAS*, 59(2): 1-26.
- . 1991. *Malay Society*. Kuala Lumpur: Pelanduk Publications.
- . 1992. “Malaysia: Lessons of History in National Development.” in Azizah Kassim and Lau Teik Soos eds. *Malaysia and Singapore: Problems and Prospects*. pp.1-33. Singapore: Singapore Institute of International Affairs.
- Kratoska Paul H. 1984. “Penghulus in Perak and Selangor: The Rationalization and Decline of a Traditional Malay Office.” *JMBRAS* 57: 31-59.
- Lau, Albert. 1989. “Malayan Union Citizenship: Constitutional Change and Controversy in Malaya, 1942-48.” *Journal of Southeast Asian Studies* 20(2): 216-243.
- . 1991. *The Malayan Union Controversy, 1942-1948*. Singapore: Oxford University Press.
- Lee Say Lee. 1981. “A Study of the Rice Trade in Kedah before and during the Japanese Occupation.” *Malaysian History*, No. 24.
- Liaw Yock Fang. 1976. *Undang-undang Melaka*. The Hague: Martinus Nijhoff.
- Malayan Security Service/Political Intelligence Journal (MSS/PIJ)*
- Milne, R. S. and D. K. Mauzy. 1986. *Malaysia: Tradition, Modernity and Islam*. Boulder, Colorado: Westview Press.
- Milner, A. C. 1982. *Kerajaan: Malay Political Culture on the Eve of the Colonial Rule*. Tucson: University of Arizona Press.
- . 1985a. “Islam and Malay Kingship.” in Ahmad Ibrahim et. al. (eds.). *Readings on Islam in Southeast Asia*. Singapore: Institute of Southeast Asian Studies: 25-35.
- . 1985b. “Malay Kingship in a Burmese Perspective.” in Mabbett, Ian (ed.).

- Patterns of Kingship and Authority in Traditional Asia. pp.158-183.
London: Croom Helm.
- Mohd. Nadzri Ismail. 1987/88. "Keadaan Ekonomi dan Beras Negeri Kedah Sewaku Pentadbiran Jepun dan Thai, 1941-1945." B.A. Thesis, Department of History, University of Malaya.
- Moy, Timothy J. 1975. "The 'Sejarah Melayu' Tradition of Power and Political Structure: An Assessment of Relevant Sections of the 'Tufat Al-Nafis'." JMBRAS 48(2): 64-78.
- . 1978. "The *Sejarah Melayu* Tradition of Power and Political Order." M.A. Thesis, Department of History, University of Malaya, Kuala Lumpur.
- Muhammad Qutb. 1964. *Islam: The Misunderstood Religion*. Ministry of Awqaf and Islamic Affairs, State of Kuwait.
- Muhammad Ikmal Said. 1995. "Malay Nationalism and Malaysia's National Identity." A Paper Presented to the Joint Seminar Department of Anthropology and Sociology, University of Malaya and Korea Institute of Southeast Asian Studies.
- Mustafa, Haji Daud. 1995. *Konsep Ibadat Munurut Islam*. Kuala Lumpur: Dewan Bahasa dan Pustaka
- Raja Haji Ahmad and Raja Ali Haji. 1982. *Tufat Al-Nafis*. Virginia Matheson (ed.). Kuala Lumpur: Penerbit Fajar Bakti Sdn. Bhd.
- Roff, William. 1980. *The Origins of Malay Nationalism*. New Haven and Kuala Lumpur.
- . 1974. *Kelantan: Religion, Society and Politics in a Malay State*. Kuala Lumpur.
- Scott, James C. 1976. *The Moral Economy of the Peasant: Rebellion and Subsistence in Southeast Asia*.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Sejarah Melayu or Malay Annals*. 1970. An annotated translation by C.C. Brown.

With a new introduction by R. Roolvink.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Shaharuddin bin Maaruf. 1988. *Malay Ideas on Development: From Feudal Lord to Capitalist*. Singapore: Times Books International.

Sharifah Maznah Syed Omar. 1993. *Myths and the Malay Ruling Class*. Singapore: Times Academic Press.

Soh, Byungkuk. 1993. "From Parochial to National Outlook: Malay Society in Transition, 1920-1948." Ph. D. Dissertation, Department of History, Ohio University.

Stockwell, A. J. 1979. *British Policy and Malay Politics during the Malayan Union Experiment, 1942-1948*. Kuala Lumpur: Malayan Branch of the Royal Asiatic Society.

Syed Husin Alatas. 1972. *Modernization and Social Change*. Sydney: Angus and Robertson.

Syed Husin Ali. 1993. *Isu Raja dan Pindaan Perlembagaan*. PJ: Vinlin Sdn. Bhd. *The Syonan Shimbun* (1943-1945/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War Office 203/5462. 1945. "Initial Relations with Malay Sultans on the Liberation of Malaya" (September 9).

War Office 203/5624. 1945. "Treatment of 'Sultans' appointed by the Japanese who are known to be pro-Japanese or otherwise of ill-repute" (September 9).

War Office 203/5635 A. 1945. "Interview with the Sultan of Johore." (September 8).

War Office 203/5635 A "Detention of Tunku Musa-Addin." (n.d.).

War Office 203/5635 A. 1945. "Interview with the Regent of Kedah." (September 17).

War Office 203/5635 A. 1945. "Interview with the Sultan of Perak." (September 19).

War Office 203/6206. 1946. "Singapore Labour Disputes: Action Taken by British Administration."

Wilkinson R. J. 1932. "Some Malay Studies." *Journal Malayan Branch of Royal*

Asiatic Society 10(1): 67-137.

———. 1912. “The Malacca Sultunate.” *Journal of Straits Branch of Royal Asiatic Society* 61: 67-71.

Winstedt, R. O. 1947. *The Malays: A Cultural History*. Singapore.

Yeo Kim Wah. 1982. *The Politics of Decentralization*. Kuala Lumpur: Oxford University Press.

Abstract

The Royal Power of Malay Sultans during the Colonial Period

Byungkuk Soh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Unlike the most cases in Southeast Asia, the traditional royal power of Malay sultans was not eroded in the wake of modernization under colonial rules. This study attempts to investigate driving forces behind the exceptional phenomenon.

The *raja* and *kerajaan*, once firmly established within the Melaka society, became the central component of Malay identity. At the beginning of its colonial rule, in fact, the British did not recognize how the royal power was crucial in the traditional Malay society. After understanding its reality through the sultans' roles on socio-political turmoils, for the British eyes, the institution of monarchy became such an effective instrument of control of the *rakyat* that they fully took advantage of its viability. As a result, the royal power was maintained. Rather, it will not be improper to say that the royal power was strengthened under British rule. However, it should be mentioned that the result was attributed, to a certain degree, to the sultans' active roles rather than British colonial policies unlike many historians believe. In addition, the "serviceable past" continued to play an effective role during the following periods.

In the first year of the occupation, the Japanese did not attempt to take advantage of the *raja* for controlling Malay *rakyat*. Around the end of 1942, how-

ever, the turning tide of the war forced the Japanese to alter their policy toward the sultans. Like the British before the war, the Japanese made use of the serviceable past for the purpose of uniting the Malays under the sultans. In consequence, the royal power continued to be effective without its serious erosion, while the *rakyat* regarded the sultans as the central component of their identity.

In the early stages of the protest against the Malayan Union, the general feeling among the Malays included a certain amount of antagonism toward the sultans who had signed away their birthright without reference to their people. However, when the aristocratic intellectuals employed the same serviceable past like the colonial powers had done, the ideological position of the Malay rulers was restored. Consequently, in the wake of the protest, the *raja* or *kerajaan* was crystallized as an integral symbol of Malay nationalism, which was a modernized version of the mystical link between the *raja* and the *rakyat* in the sultanate of Melaka.

Key words: *raja*, *kerajaan*, *rakyat*, sultan, royal power, Malay identity, Malay nationalism, British colonial rule, Japanese occupation, “serviceable past”